



6장 - 박스띄우기

float

[float - 박스 수평 정렬하기](#)

[clear - 박스 수평 정렬 해제하기](#)

[중첩 레이아웃에서 float로 인한 부모요소 높이값 상실 문제](#)

[실습 1. 아래의 레이아웃을 마크업하고 스타일을 적용하세요.](#)

[실습 2. 아래의 레이아웃을 마크업하고 스타일을 적용하세요.](#)

position

[position 속성](#)

[position과 함께 사용하는 속성](#)

[position - relative](#)

[position - absolute](#)

[실습 3. 아래의 레이아웃을 마크업하고 스타일을 적용하세요](#)

[요소 쌓임 순서 \(Stack order\)](#)

[실습 4. 아래의 레이아웃을 마크업을 참고하여 스타일을 적용하세요.](#)

[실습 5. 아래의 레이아웃을 마크업을 참고하여 스타일을 적용하세요.](#)

- 이번 챕터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레이아웃 기법을 학습합니다.

float

float - CSS: Cascading Style Sheets | MDN

CSS 속성(property) float 은 한 요소(element)가 보통 흐름(normal flow)으로부터 빠져 텍스트 및 인라인(inline) 요소가 그 주위를 감싸는 자기 컨테이너의 좌우측을 따라 배치되어야 함을 지정합니다.

<https://developer.mozilla.org/ko/docs/Web/CSS/float>

mdn web do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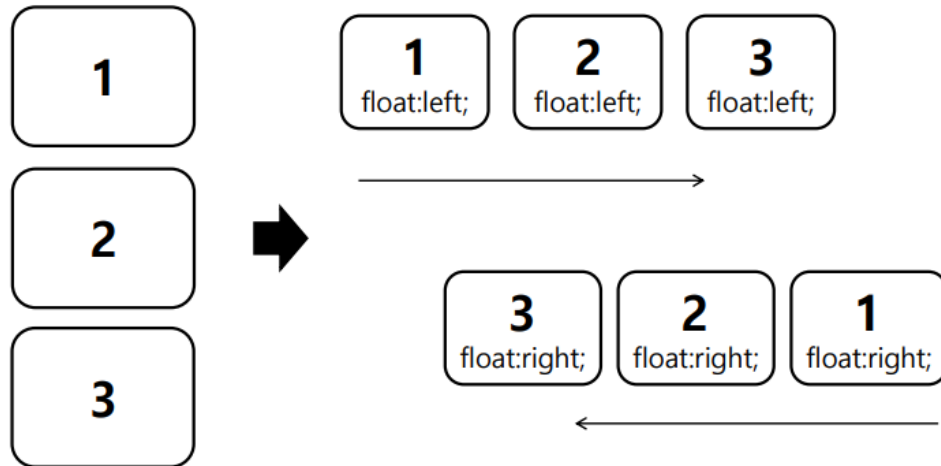
속성 값

flo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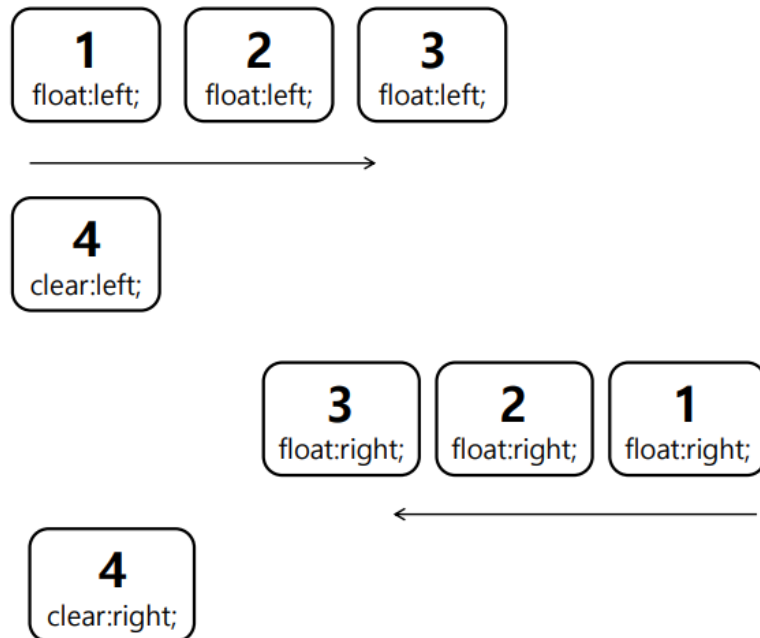
- 요소를 좌우 방향으로 띄움(수평 정렬)

값	의미
none	요소 띄움 없음 (기본값)
left	왼쪽으로 띄움
right	오른쪽으로 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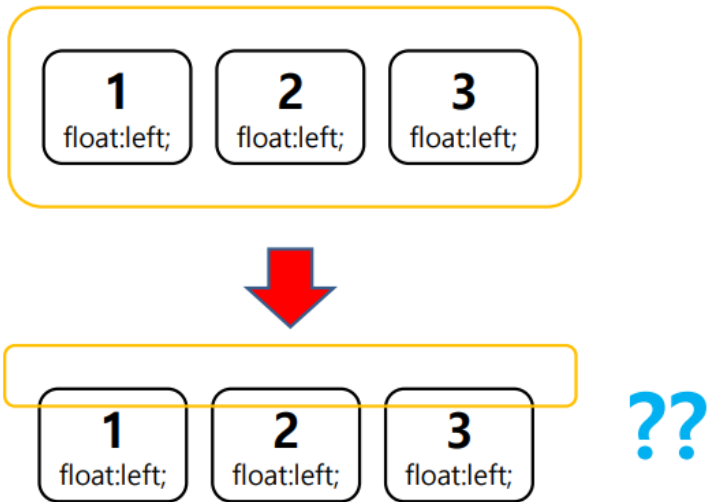
float - 박스 수평 정렬하기



clear - 박스 수평 정렬 해제하기



중첩 레이아웃에서 float로 인한 부모요소 높이값 상실 문제



원인: float이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

• 해결방안

1. 빈 형제 요소를 추가하여 clear속성 사용
2. 부모 요소에 overflow: hidden; 적용
3. 부모요소에 가상 클래스를 추가하여 해제

실습 1. 아래의 레이아웃을 마크업하고 스타일을 적용하세요.

녹차와 커피

녹차는 은은한 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차이다. 녹차를 마실 줄 모르는 사람들은 티백들을 모두 뜯어 주전자에 넣고 끓이기도 하는데 강한 차의 향기도 견디기 힘들겠지만 보관도 힘들고 그때그때 방금 끓인 듯한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며 진한 카페인 덕에 밤에 잠들기도 힘들 것이다.

커피는 독한 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매우 좋아하며 심한 경우 태어나기 전부터 커피를 마신 듯 강한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원두를 씹어서 향에 자신을 담그는 사람도 있고 설탕, 시럽 등 다른 조미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오직 커피맛만을 고집하는 마니아들이 늘고 있다.

▼ 텍스트 복사하기

녹차는 은은한 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차이다. 녹차를 마실 줄 모르는 사람들은 티백들을 모두 뜯어 주전자에 넣고 끓이기도 하는데 강한 차의 향기도 견디기 힘들겠지만 보관도 힘들고 그때그때 방금 끓인 듯한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며 진한 카페인 덕에 밤에 잠들기도 힘들 것이다.

커피는 독한 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매우 좋아하며 심한 경우 태어나기 전부터 커피를 마신 듯 강한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원두를 씹어서 향에 자신을 담그는 사람도 있고 설탕, 시럽 등 다른 조미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오직 커피맛만을 고집하는 마니아들이 늘고 있다.

실습 2. 아래의 레이아웃을 마크업하고 스타일을 적용하세요.

나의 아름다운 정원

사람들은 아마 자신에게 **자신감을 북돋워 주는** 표정 있는 꽃들을 선호할 것이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며 고귀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붉은 색이 단연 으뜸이며 한 송이만 있어도 빼어나다.



드물게 푸른색을 띠고 있으며 작지만 시원해 보이는 어린 꽃이려고 할 수 있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 더욱 아름답다.



색도 모양도 화려하며 이름과 겉맞지 않게 아름다운 꽃으로 매우 완숙한 이미지를 풍기는 꽃이다.



태양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꽃으로 열매가 큰 편에 속하며 숨이가 적어야 제격이다.

▼ 텍스트 복사하기

너무 화려하지 않으며 고귀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붉은 색이 단연 으뜸이며 한 송이만 있어도 빼어나다.

드물게 푸른색을 띠고 있으며 작지만 시원해 보이는
어린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 더욱 아름답다.

색도 모양도 화려하며 이름과 걸맞지 않게 아름다운 꽃으로
매우 완숙한 이미지를 풍기는 꽃이다.

태양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꽃으로 얼굴이 큰 편에
속하며 송이가 적어야 제격이다.

position

position - CSS: Cascading Style Sheets | MDN

CSS position 속성은 문서 상에 요소를 배치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top (en-US), right (en-US), bottom (en-US), left (en-US) 속성이 요소를 배치할 최종 위치를 결정합니다.

 <https://developer.mozilla.org/ko/docs/Web/CSS/position>

 mdn web docs

position 속성

속성 값

position

- 요소의 위치 지정 방식을 설정.

값	의미
static	지정 방식 없음 (기본값)
relative	요소 자신을 기준으로 배치
absolute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배치
fixed	브라우저(뷰포트)를 기준으로 배치
sticky	스크롤 영역을 기준으로 배치

position과 함께 사용하는 속성

속성 값

- position 기준에 맞는 위, 아래쪽 거리를 설정.

top, bott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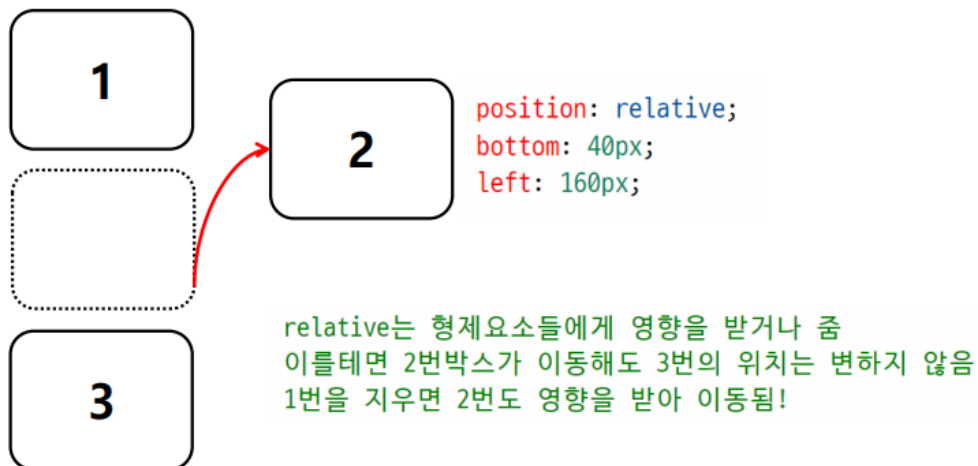
값	의미
auto	브라우저가 계산 (기본값)
단위	px, em 등 단위로 지정
%	위치상의 부모요소의 height의 비율로 지정 음수값 허용

- position 기준에 맞는 왼쪽, 오른쪽 거리를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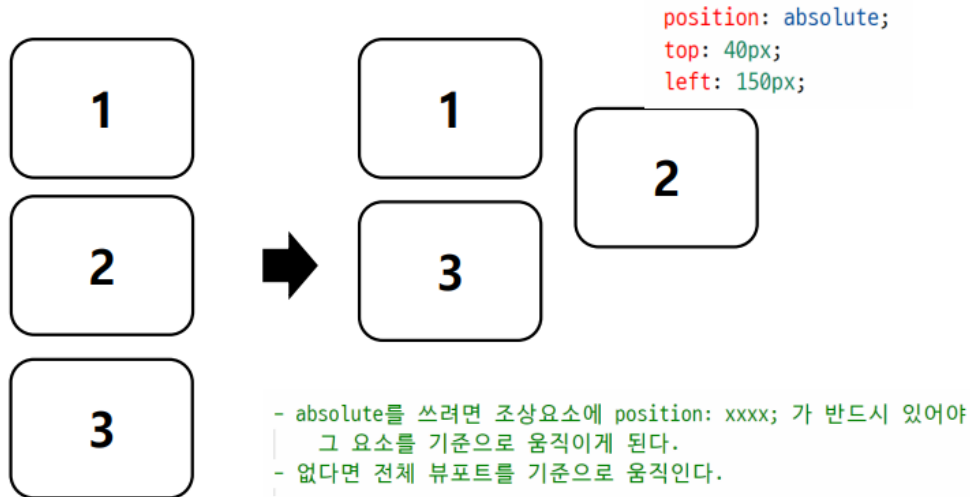
left, right

값	의미
auto	브라우저가 계산 (기본값)
단위	px, em 등 단위로 지정
%	위치상의 부모요소의 width의 비율로 지정 음수값 허용

position - relative



position - absolute



실습 3. 아래의 레이아웃을 마크업하고 스타일을 적용하세요

- '더보기' 링크를 '이름없는 애들 이름 짓지 말기' 아래쪽에 마크업한 후 position속성을 사용하여 우측 상단으로 옮기세요

동물병원 24시

더보기

밥 먹이는 시간 지킬 것

길고양이 주사 맞히기

눈 아픈 동물 목에 깔때기 씌우기

매일 목욕 시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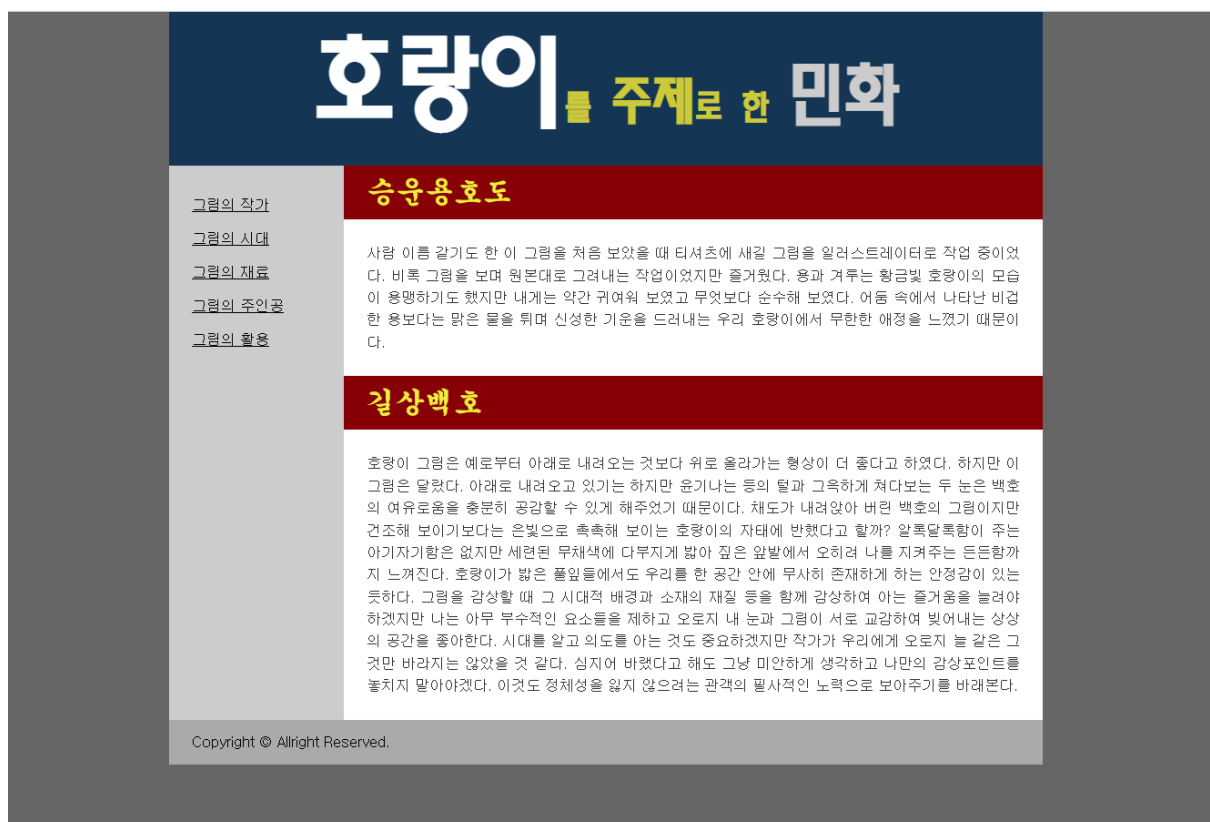
이름없는 애들 이름 짓지 말기

요소 쌓임 순서(Stack order)

- 요소가 쌓여 있는 순서를 통해 어떤 요소가 더 위에 쌓이는지를 결정 (Z축)

1. static을 제외한 position속성의 값이 있을 경우 가장 위에 쌓임
2. position이 존재한다면 z-index속성의 숫자값이 높을 수록 위에 쌓임
3. position이 존재하고 z-index속성의 숫자값이 같다면 나중에 작성한 요소일수록 위에 쌓임

실습 4. 아래의 레이아웃을 마크업을 참고하여 스타일을 적용하세요.



▼ 마크업 코드


```

<!DOCTYPE html>
<html lang="ko">
<head>
  <meta charset="UTF-8">
  <meta http-equiv="X-UA-Compatible" content="IE=edge">
  <meta name="viewport" content="width=device-width, initial-scale=1.0">
  <title>Document</title>

  <!-- reset css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delivr.net/npm/reset-css@5.0.1/reset.min.css">

  <!-- custom css -->
  <link rel="stylesheet" href="tiger.css">
</head>
<body>
  <div id="wrapper">
    <header>
      <h1>
        <strong>호랑이</strong>를 <span>주제</span>로 한 <em>민화</em>
      </h1>
    </header>
    <div class="container clearfix">
      <ul class="menu">
        <li><a href="#">그림의 작가</a></li>
        <li><a href="#">그림의 시대</a></li>
        <li><a href="#">그림의 재료</a></li>
        <li><a href="#">그림의 주인공</a></li>
        <li><a href="#">그림의 활용</a></li>
      </ul>
      <div class="content">
        <h2>승운옹호도</h2>
        <p>사람 이름 같기도 한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티셔츠에 새길 그림을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 중이었다. 비록 그림을 보며 원본대로 그려내는 작업이었지만 즐거웠다. 용과 거루는 황금빛 호랑이의 모습이 웅맹하기도 했지만 내게는 약간 귀여워 보였고 무엇보다 순수해 보였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비겁한 용보다는 맑은 물을 튀며 신성한 기운을 드러내는 우리 호랑이에서 무한한 애정을 느꼈기 때문이다.</p>
        <h2>길상백호</h2>
        <p>호랑이 그림은 예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형상이 더 좋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그림은 달랐다. 아래로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윤기나는 등의 털과 그윽하게 쳐다보는 두 눈은 백호의 여유로움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채도가 내려앉아 버린 백호의 그림이지만 건조해 보이기보다는 은빛으로 촉촉해 보이는 호랑이의 자태에 반했다고 할까? 알록달록함이 주는 아기자기함은 없지만 세련된 무채색에 다부지게 발아 짙은 앞발에서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든든함까지 느껴진다. 호랑이가 밝은 풀잎들에서도 우리를 한 공간 안에 무사히 존재하게 하는 안정감이 있는 듯하다. 그림을 감상할 때 그 시대적 배경과 소재의 재질 등을 함께 감상하여 아는 즐거움을 늘려야 하겠지만 나는 아무 부수적인 요소들을 제하고 오로지 내 눈과 그림이 서로 교감하여 밝혀내는 상상의 공간을 좋아한다. 시대를 알고 의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작가가 우리에게 오로지 늘 같은 그것만 바라치는 않았을 것 같다. 심지어 바꿨다고 해도 그냥 미안하게 생각하고 나만의 감상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것도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관객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보여주기를 바래본다.</p>
      </div>
    </div>
    <footer>
      <address>Copyright &copy; Allright Reserved.</address>
    </footer>
  </div>
</body>
</html>

```

실습 5. 아래의 레이아웃을 마크업을 참고하여 스타일을 적용하세요.



▼ 마크업 코드

```
<!DOCTYPE html>
<html lang="ko">

<head>
  <meta charset="UTF-8">
  <meta http-equiv="X-UA-Compatible" content="IE=edge">
  <meta name="viewport" content="width=device-width, initial-scale=1.0">
  <title>Document</title>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delivr.net/npm/reset-css@5.0.1/reset.min.css">
  <link rel="stylesheet" href="art.css">
</head>

<body>

  <div id="wrapper">
    <header>
      <h1>Musée d'Orsay<span>Musée d'Orsay Musée d'Orsay
        Musée d'Orsay Musée d'Orsay Musée d'Orsay</span>
      </h1>
      <h2 class="stit">
        Royal Academy of Arts, THE REAL VANGOGH THE ARTIST AND HIS LETTERS
      </h2>
    </header>
    <!-- //end header -->

    <div class="container clearfix">
      <aside class="side-menu">
        <h3>ARTIST</h3>
        <ul>
          <li><a href="#">작가의 작품</a></li>
          <li><a href="#">작가의 시대</a></li>
          <li><a href="#">작가의 일생</a></li>
        </ul>
      </aside>

      <div class="main-content">
        <div class="art-piece">
          <h4 class="title"><a href="#">피리부는 소년</a></h4>
          <div class="artist">에두아르마네</div>
          <p class="detail">1866 캔버스에 유채, 161*97cm, 파리 오르세 Edouard MANET, Le Fifre, H.T, 161*97cm</p>
        </div>
        <div class="art-piece">
          <h4 class="title"><a href="#">고흐의 방</a></h4>
```

```

<div class="artist">빈센트반고흐</div>
<p class="detail">1889 캔버스에 유채, 57.5*74cm, 파리 오르세 Vincent Van GOGH, La Chambre de Van Gogh, H/T, 57.5*74cm</p>
</div>
<div class="art-piece">
  <h4 class="title"><a href="#">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화가의 자화상</a></h4>
  <div class="artist">폴 고크</div>
  <p class="detail">1890-1891 캔버스에 유채, 38*46cm, 파리 오르세 Paul Gauguin Portrait de l'artiste au Paul Gauguin, H/T, 38*46cm</p>
</div>
<div class="art-piece">
  <h4 class="title"><a href="#">오페라좌의 관현악단</a></h4>
  <div class="artist">에드가 드가</div>
  <p class="detail">1868-1869 캔버스에 유채, 32*46cm, 파리 오르세 Edgar Degas, L'orchestre de l'Opera H/T, 38*46cm</p>
</div>
<div class="art-piece">
  <h4 class="title"><a href="#">만종</a></h4>
  <div class="artist">장 프랑수아 밀레</div>
  <p class="detail">1857-1859 캔버스에 유채, 55.5*66cm, 파리 오르세 Jean-Francois Millet, L'Angelus H/T, 55.5*66cm</p>
</div>
<div class="art-piece">
  <h4 class="title"><a href="#">제비꽃장식을 단 베르트모리조</a></h4>
  <div class="artist">에두아르마네</div>
  <p class="detail">1872 Eduouard Manet Berthe Morisot au bouquet de H/T, 55*38cm</p>
</div>
</div>

<aside class="banner">
  <h3><span class="all">전세계인들에게</span><span class="love">제일 사랑받는</span><strong>서양미술사의 시대</strong></h3>
  <ul class="link">
    <li><a href="#">Workshop Go</a> <span>Life drowing workshop</span></li>
    <li><a href="#">Summer exhibition</a> <span>A-level Summer Exhibition Online 2010</span></li>
    <li><a href="#">RA collection</a> <span>RA Collections</span></li>
  </ul>
</aside>

</div>
<!-- // end container -->

<footer>
  <address>&copy; 2012 Les Amis du Musée d'Orsay. All rights reserved.
    <a href="#">amis@amis-musee-orsay.org</a>
    <span>Legal status</span>
  </address>
</footer>

</div>
<!-- // end wrapper -->
</body>

</html>

```